

[목회자 모임] 연합으로 완성

2018년 4월 13일 이현래 목사님

로마서를 읽으면 처음에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라고 써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롬3:13),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롬3:15).”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쪽 나열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으로 첫 번째 제시한 것이 <믿음>이다. 사람이 행위로 어떻게 다 의롭게 되겠는가? 아브라함도 무슨 행함이 있기 전에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도 비록 행위가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시작한다.

종교개혁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행위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긴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완전해서 의로워진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특별히 개신교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행위를 강조하는 카톨릭에 대해서 반동으로 나온 것이 개신교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이 반동주의라는 뜻인데, 무엇에 대한 반동인가?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반동이다.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하니까 연보궤에 돈이 떨어질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행위가 완전하면, 공덕이 완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공덕을 양보해 줄 수 있다거나 분배해 줄 수 있다는 말까지도 나왔다고 한다. 100점만 맞으면 되는데 150점을 맞은 사람은 50점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속에서 성자사상이 나온 것 같다. 그 시대가 성자들이 나오는 시대인데, 그 성자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육신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일종의 고행주의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십자가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속했다.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성스러워지고 온전해진다는 사상이 팽배해지게 되었다.

신부 제도가 확립된 것도 일반 평신도들은 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제 그룹,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특수한 생활을 해야 된다, 남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여 수도원, 수녀원, 신부, 수녀와 같은 종교적인 그룹이 생겨난 셈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사에 참여하고 교회 칙령에 따라 가면 된다. 이렇게 되었다.

마치 우리나라 불교가 원불교로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원불교의 창시자는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분의 주장도 불교의 그 어려운 것을 다 하겠는가? 10가지 계명만 추려서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불교가 보편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불교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원불교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10가지만 지키면 된다. 거기는 돈 있는 사람이 참 많다. 돈이 있어도 되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다. 그래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원불교는 지금 세력이 커지고 있다.

기독교도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그룹이 둘로 갈라졌다. 상층그룹과 하층그룹으로 갈라졌다. 일반 신도들은 아주 편하다. 기도서를 주면 그것을 그냥 읽으면 된다. 성경도 굳이 읽을 필요 없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잘하면 되니까 굳이 성경을 볼 필요도 없다. 교회에서 발행하는 행동지침 같은 것을 따라 하면 되니까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유대교도 비슷한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백성을 온전케 하려고 주었는데, 겉만 그렇게 지키지 속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 해마다 달력을 만들 때, 매일 지켜야 될 항목이 달력에 다 써있다고 한다. 가령 유월절은 이렇게 한다거나 초막절은 이렇게 한다거나 평소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날을 이렇게 한다는 행동지침이 다 있다고 한다. 그것만 따라 하면 된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기도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필요도 없다. 거기에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이 보이지만 일반인에게는 그것이 쉬운 것이다. 모슬렘도 코란을 읽어보면 정말 시시하다. 이것을 경전이라고 읽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가? 너무너무 쉽다.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한다거나 1년에 2번씩인가 성전에 가서 코란을 큰 소리로 읽는 것, 이런 몇 가지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믿기가 아주 쉽다.

기독교는 좀 까다로운 것이 기도를 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경을 알아야 된다 등

복잡하다. 국교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게 되었다. 보편적 교회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없다. 어떻게 다 완전해 지겠는가? 개신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고 나왔다. 천주교는 어떤 그룹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헌신하도록 하고, 보통 일반 국민들은 지시한 대로 따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그룹으로 갈라졌다고 볼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신득의(以信得義), 유명한 교리이다.

옛날에는 나도 참 좋았다. 어떻게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겠는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행위로 어떻게 완전해지겠는가?

이것을 주장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여 성결의 생활을 하여 우리가 어떤 상태에 가야지 무조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면 되겠느냐는 파가 생겼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의 생활을 아주 경건하게 한다. 내가 그런 선교사와 협동을 해보았는데 집에 가도 그렇게 교회에 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생활은 굉장히 짜여져 있고 경건하다. 아이들도 교회에 데리고 오면 주일학교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일집회 시간에도 꼭 자기 옆에 앉혀놓고 아주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성결파들이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요한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다. 그때 내가 반기를 들었다. 어떻게 사람이 성결해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성결한 생활이 의롭다 함까지 이를 수 없다 하여 1시간 동안 내내 토론을 했다.

그때 내가 생각하기로도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할 때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한 분 목사님도 그런 사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돌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얼른 들으면 좋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은혜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인 아니고 법리적, 법률적인 개념이다.

내가 독생자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말이다. 이것은 법리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며칠 간 노력하면 벌금 얼마를 감해주겠다는 것과 비슷하다. 네가 믿었으니까 그

반대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것이다. 의롭지는 못하지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것이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롭지 못한 인간이 법적인 관계 만으로 온전한 관계가 되겠는가?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 봐주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죄인인 셈이다. 심지어 구원 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덮어준 것이라고 하면 위로가 되는데, 그것이 뭔가 찝찝하게 답이 되지 않는다.

이때 우리나라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소위 구원파라는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대지각변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사람들은 성경구절을 놓고 보라,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묻는 말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당에 갈 믿음이 있습니까?'였는데, 이 말에 대답을 못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다. 성경으로 공격하면 넘어졌다. 한국 기독교가 확 뒤집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요즘은 2천명이 별 것이 아니지만 당시 그 사람들이 여름 수양회를 하면 학교를 빌리는데 2~3천명이 전국에서 몰려 들었다. 대대적인 집회였다.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이 대대적으로 빠져 나왔다. 이단이라고 몰아쳐도 막 들어갔다. 권** 목사가 원래 장로교 목사이고 대구 **교회 목사이다. 그래서 대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사실 알고 보면 미국 침례교회 교리이다. 미국은 침례교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교리인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색달랐던 것이다. 한국은 장로교 판이고 미국은 침례교 판이다.

미국 침례교인이 5천만명인데 장로교인은 5백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가는 데마다 침례교이지 장로교를 보기는 아주 어렵다.

내가 충주지구 C.C.C.에 있었는데, 충주 중원 제천 단양 원주 이쪽으로는 장로교를 보기가 참 어렵고 전부가 감리교다. 가뭇에 콩 나듯이 장로교가 있는 정도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다고 하면 다 침례교다.

침례교와 장로교는 건물 자체가 틀리다. 장로교가 종탑이 있어서 표가 난다. 그

런데 침례교는 그런 것이 아주 소박하다. 건물을 보면 금방 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다가 전부가 될 수 없다. 그것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가? 안 된다. 법적인 보장만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나한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로마서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창세기 17장 이후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왔는가? 이스마엘이 나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난 후에 하갈과 결혼하여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다. 우리가 그러기가 쉬운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생산되는 것은 이스마엘이다.

오늘날 기독교 문제가 그것이다.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아들을 낳아보니 이스마엘이다. 이것은 이삭과 대립되는 아들이다.

이삭을 낳아서 방긋방긋 웃을 때가 오니까 이스마엘이 희롱했다고 한다. 자기는 13세이고 이삭은 이제 태어났으니까 무시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저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보라고 했다.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밤새 고민을 한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하시기를 내보내라. 너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이스마엘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듣고 다음날 가족 부대에 물을 넣고 먹을 것을 넣어서 내보낸 것이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것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인이 오라고 해서 내가 첩이 된 것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위로 하셨다.

그때 하갈이 발견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여호와시다. 내 사정을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감찰하시는 여호와라고 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여자는 종이라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되고, 사라가 낳은 아들은 자유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얻을 자라고 되어있다. 율법과 은혜(복음)를 대조하면서

이 두 여자를 대조시키고 있다.

하갈은 하나도 자기가 잘못된 것이 없다. 자기가 시집을 가겠다고 했는가? 아내가 되겠다고 했는가? 주인들이 결정해서 오라고 해서 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왜 버려지느냐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다. 법으로 생각하면 맞다.

나는 젊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아무래도 맞지 않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벌을 줄 수가 있느냐고 생각한 적이 한 때 있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사라가 너무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기에 깊은 뜻이 들어있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9세, 그때 낳은 아들이다. 이 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낳은 아들이지 사람의 힘이 조금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아들을 드릴 때 보면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밤새 고민했다는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삭을 모리야 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는 아무 고민한 흔적이 성경에 없다.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하고 나갔다고 가르치던데 성경에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

이삭을 드릴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왜 그랬겠는가?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고민을 했는데, 이삭을 내보낼 때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으시는가? 자기가 주신 것을 자기가 받으시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드리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창세기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한 사람의 제물은 받고 다른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의 차이가 아니다. 사람의 차이이다.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는 법은 없다.

곡식도 제물이 된다. 농사 짓는데 어떡하겠는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 소출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양을 키웠으면 양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치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다고 한다. 제물만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받으신 것이다.

유월절 구속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볼 때는 양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곡식은 소제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다. 가인이냐 아벨이냐이지 곡식이냐 양이냐가 아니다. 제물은 돈이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안 되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린다. 하나님도 융통성이 있는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곡식밖에 없는 사람에게 육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는가?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과 아벨이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그 이름에서 표현이 된다. 가인이라는 말은 '획득했다'는 말이다. 획득했다는 말은 내 노력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아벨이라는 말은 '숨'이라는 말이다. 아무것도 아닌 숨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받았는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그 아벨이 예수의 계보로 이어진다. 예수를 어떤 면으로 설명할 때는 아벨 쪽으로 설명한다.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드리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노력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 속에는 자기 의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가 없다. 돈이 아깝다. 헌금이 아까워져 버린다. 그런 헌금은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기가 준 것을 다시 받는 것이다. 농사 짓는 사람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사짓는 것이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을 도적이라고 한다. 뿌리고 거둔 사람이다.

법도 참 묘하다. 땅은 남의 땅이라도 씨를 내가 뿌리면 작물은 내 것이다. 밭에 나무가 심어졌는데 잘못 사면 큰 코 다친다. 밭을 샀는데 나무는 사지 않았다면 다음에 나무 값을 내놓으라고 한다. 나무 값이 밭 값보다 많다. 혹시 밭을 살 때, 밭에 작물이 있으면 작물을 제한하는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물은 땅 주인 것이 아니라 뿌린 자, 심은 자의 것이다.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 자기가 뿌리신 것을 자기가 거두는 분이시지 자기가 뿌리지 않고 거두시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을 받으신다면 내가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는 헌금을 받지 내가 땀을 흘리고 얻었는데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보면 어떤 헌금은 참 감사가 되는 헌금이 있는데, 어떤 헌금은 문제가

되는 헌금이 있다. 그 헌금이 교회를 분열시킨다. 가장 열심이 있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문제가 된다. 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임을 알고 드릴 때는 감사가 되고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가 되지만 내가 힘써 벌었으면 내 공로가 거기에 들어있다. 세상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것을 좋아한다. 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이스마엘과 이삭! 차이는 이것이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 때 낳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힘이 없을 때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이방 나라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스마엘이 한계이다. 법리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한계가 이스마엘이다. 만일 거기서 더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법리적인 종교에 매이게 된다.

구약 전체는 알고 보면 모두가 다 법리적이다. 신약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법리적인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왔다는 말이다. 생명의 세계로 왔다는 뜻이다.

지금 시대가 신약시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날 교회가 구약에 있는 교회인지, 신약에 있는 교회인지가 구별되어야 된다.

광야를 지나갈 때, 그것은 순전히 은혜뿐이었다. 왜? 애굽에 살 때 바로의 양식을 먹던 사람들이니까 광야에서는 바로의 양식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고 살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가! 그런데도 이 혜택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소산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되어있다.

광야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자기들이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제물을 드릴 수가 있다. 왜? 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소산이라는 말이다.

신약시대는 성육신의 시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이 된 시대이지 말씀이

법이 되어 법리적으로 계약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것이고 너무 너무 놀라운 것이다.

생명과 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 법적인 관계는 생명이 없다. 아버지가 판사고 아들이 죄인이면 법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간음하다 붙들려 온 여자를 놓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왜? 그것은 법으로 한 말이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려야 하니까 법으로는 살릴 수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해서 그 여자를 살리게 된 것이다. 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황당해지고 말았다. 법으로 대응할 줄 알았더니 전혀 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대할 때는 다 선악과의 법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도 선악과의 법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혼소송이 왜 걸리나? 선악과 때문이다. 모든 게 다 그렇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다 그렇다. 그 문제를 기독교가 또 다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법과 법의 대결이다. 이것은 끝이 없다. 더 나은 법이 생길지 몰라도 법은 끝까지 법이다. 생명의 영의 법이 들어와야 된다. 교회는 당연히 생명의 영의 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절망적 상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런데 거기서 만일 로마서가 끝나버렸다면 이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

다음에 연결된 것이 중요하다. 5장 6장에 가면 연합의 비밀이 나온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다.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다 읽으면 읽는 대로 복음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의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다.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모든 사람을 하나로 본 것이다. 하나로 봤으면 문제도 하나다, 사람이 하나면 문제가 하나다.

바울이 여기서 그 모든 사람을 오로지 두 사람으로 갈라놓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해놓았다. 너무너무 간단하게 돼버렸다.

숫자가 수없이 많은 것을 전부 약분하고 약분해 놓으니까 일대일밖에 안 남은 것처럼 그렇게 쉬워져 버렸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게 되어 버렸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왜 나는 죄인이 되었는가? 아담 안에 있어서 그렇다.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죄인이다.

일본 천황이 항복할 때 일본 사람이 전부가 항복을 한 것이다. 나는 항복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천황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다 항복한 것이다. 그때 인도네시아 쪽에서 종전이 된 줄 모르고 정글에 숨어서 살다가 27년 만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니까 아직도 태평양 전쟁을 계속 하는 줄 알고 나와 보니 27년이 지나가버렸다. 자기 혼자 아무리 애국심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해도 이미 천황이 항복을 해버렸으니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부 아담 안에 포함된 사람이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했어도 나는 그 사람이다. 이 포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가야 이 포함을 알 수 있다.

내가 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이야기하는가?

이것 때문에 말썽이 좀 많다. 아름아름 알 것 같은데 모르겠으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아름아름 하다는 사람도 있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이렇게 복잡해졌다.

사람이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는다.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 평범한 이야기가 평범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버렸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내가 발견될 수 있는 자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속에 모시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다. 성령이 자기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잘하는 대로 놔둬보라. 어디까지 가는

지 보면 안다. 나는 그것이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예수를 모시려고 해도 안 되고 성령과 함께 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날 길이 없다.

딱 한군데 예수님의 전 생애 중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이 딱 한자리 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더라면 나는 또 못 만난다. 뛰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만나게 되었다. 뛰어내리지 못하는 운명적인 인간, 이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자리에 우리 인류 가운데 몇 명이 포함되겠는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자리에 누가 거기에 참여되겠는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누가 거기 참여되겠는가? 참여 된다고 해도 한 두 사람밖에 안 된다. 절대로 참여되지 않는다.

만유가 구원되려면 우리와 하나일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나는 왜 아담 안에 있었던가? 나는 왜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담과 내가 한 운명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도 나와 한 운명 안에서 만나지지 그 운명을 벗어나면 못 만나게 된다.

인간관계도 유치원 친구와 초등학교 친구와 고등학교 친구와 대학교 친구가 다르다. 누가 제일 친한가? 유치원 때 친구가 제일 친하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으니까 그렇다.

대학교 가서 만난 친구는 아무리 친해도 초등학교 친구와 다르다. 왜? 많은 것이 있다. 그런 조건에서 만났다. 조건이 적을수록 적은 데서 만난 사람일수록 더 가깝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전혀 조건이 없는 그 자리에서 밖에는 그를 만날 수 없다.

기도를 해서 모시느니 성령으로 충만하니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나로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된다. 나도 노력을 많이 해봤다. 그래도 안 되더라.

만날 자리는 딱 한자리밖에 없다. 여기서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다. 그 자리를 발견하고 오면 아 만유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모든 사람이 여기 포함되고 심지어는 동물까지 식물까지도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만유의 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는가?

포함될 수 있어야 주님이 되는 것이다.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유의 주라고 한다.

북한에서 묘한 사상을 볼 수 있는데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국제 공산주의가 스탈린이 죽은 후에 와해되면서 소련하고 중국이 와해됐다. 그러면서 나온 사상이 북한에서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서 나온 사상이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전 인민의 총화가 수령이라는 것이다. 수령은 김일성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전인민의 총화가 삼각꼭지점이 수령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령은 영원하다고 한다. 김일성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인민의 총화가, 항상 인민의 총화는 있는 것이다.

한 사람 안에 모든 인민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틀림없이 기독교 공부를 했던지 그런 사람이 만든 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산다고 해서 생긴 것이지만 이론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놀랍다. 삼위일체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강**이라는 사람이 목사이고 김일성의 외삼촌인가 그렇다. 그래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체사상이 무엇인가 하고 알아보더니 그런 것이 나오더라. 그런데 공산당 운동을 한 사람도 주체사상이 뭔지는 잘 모르더라.

이게 아주 비밀한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수령님, 수령님 하는 것이다. 말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인숭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숭배라는 말이 아니고 논리적으로는 인민의 대표자라는 말이다.

그러면 전 인류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석가모니인가 공자님인가 예수님인가? 다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자님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한 말이다. 그들의 행위, 업적, 성인의 반열, 그것을 보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시험을 보면 누가 일등을 하겠는가? 석가모니와 공자님과 예수님과 마호멧과 시험을 보면 누가 일등을 하겠는가?

나는 석가모니 안에서 나를 포함한 자리를 발견할 수 없다.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준 자리가 없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나는 그와 같은 수양을 해서 그런 경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안에 포함되지는 못한다.

공자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훌륭한 분이지만 나는 그분 안에 포함될 수 없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유학하는 사람들은 공자님은 배운 것이 아니고 생이지지

(生而知之)했다고 한다. 낱자마자 다 알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낱자마자 다 알았다고 하는데 존경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 공자님 안에는 내가 포함될 수 없다.

예수님도 물위로 걸어난 분한테 내가 어떻게 포함이 되겠는가? 우리는 박수 쳤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에게 박수 쳤고 물 위로 걸어나는 분에게 박수 쳤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분에게 다 박수 쳤다. 박수칠 대상은 되는데 내가 포함될 대상은 아니다.

나는 그 포함을 거기서 발견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못한 거기서 발견했다. 이것은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전파하기 전에 또 한 번 있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다는 말씀이 나온다.

이것은 보통 사람처럼 시험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 전쟁이 왜 필요한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전쟁이 필요했다.

첫 번째 말이 그 말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4:3).”**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서 아담이 속은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나 이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다 끌려서 꼬리 내리고 천사를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 같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빵 한 조각씩 나눠줬으면 승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고 대답했다. 사람은 돌로 떡 만드는 게 아니다. 돌로 떡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그 말을 그렇게 들었다.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지 돌로 떡을 만든다고 하나님 아들이냐 이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귀에 대한 도전이다. 마귀가 뭐라고 했는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아담이 아이고 나는 그것은 못하는데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그러면 너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속은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일이다. 복음이 안 된다.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여기서 승리해야 내가 비록 사람이지만, 돌로 떡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것이 사람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지만 이것이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은 하늘로 날아다녔다고 전하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천사를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속은 것이 그것 때문에 속았다. 다른데 속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사를 믿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보라.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경험을 한 다음에도 가나안 땅에 가서 당장에 바알을 섬겼다. 숨도 안 돌리고 바알을 섬겼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모른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가? 안 봤다. 하나님을 모른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선약과를 안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못 이겨서 선약과를 먹었다. 그래서 천사의 종이 되고 만 것이다. 사람들 속의 모든 생각은 천사와 같이 되려는 생각이다. 천사처럼 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예수를 따랐던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따랐다. 물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갔다. 십자가 앞에 가니까 다 달아나 버렸다. 왜? 자기들이 바라던 사람이 아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다. 선약과를 먹고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다.

전에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일 때는 자기들이 볼 때 선약과를 먹고 기대했던 그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자기들은 그렇게 본 것이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꿈작 못하고 죽더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겠는가?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

라고 믿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사탄에게 지금 팔려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인간을 건져내 보려고 한다. 사탄 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지고 밖에는 건져낼 수가 없다. 진실이 아니면 내가 능력을 가지고 하면 건져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 사람 속에 천사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 하고 있는 것이 들어있다.

인간의 운명을 보면 어찌면 너무 비참하다. 살면 뫼해,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하면 다 끝난다.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와서 걸려버린다. 이 죽음 안에서 내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내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가서 세상은 그만두더라도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예수를 따라 가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전하겠는가? 그 사람 앞에 전할 말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나는 보았다. 참 인간을 보았다. 우리 대표자를 보았다. 나를 완전하게 포함하신 이를 보았다. 이 말이다.

나는 예수 안에 포함된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만족이 된다. 영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과 나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못해도 그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된 증거가 아니다. 예수 안에 포함된 이것이 하나님 아들된 증거이다.

로마서 6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롬6:3).”** 왜 우리를 이 죽음 안으로 끌고 들어가겠는가? 왜 뛰어내리지 못한 죽음 안으로 우리를 지금 몰고 들어가는 것이다. 5장 6장을 읽어보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들어간다. 그 해답은 그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 6:8).” 이 소망을 준다.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말이다.

죽음이 없이 예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죽음을 통과해서, 그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 100살의 아브라함이고, 눈이 멀

어서 무엇을 축복하는지 모르고 축복하는 이삭이고, 80세에 양을 치는 모세가 다 같은 자리다.

예수의 십자가와 똑 같은 자리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자리, 이 자리가 다 같은 자리다. 이것이 복음이지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다.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밖에 나타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안에서 그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

이렇게 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

새 생명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와 연합한 그 생명이 새 생명이다. 연합하지 않은 생명은 무정란이다. 계란은 계란인데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가? 무정란이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창세기 2장에 가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혼이 되었다고 한다. 또 좀 더 나가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전부 이렇게 둘이 합해서 뭘 생산하도록 되어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겠는가? 둘이 합해야 된다. 남자와 여자로 지었기 때문에 된다. 남자와 여자로 짓지 않았으면 생육하고 번성이 되는가? 바로 같은 이치다. 사람이 누구와 연합하느냐의 문제이다.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산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이다.

여기서 불교와 완전히 갈라진다. 불교는 혼자서 완전해지려고 한다. 유아독존이다. 홀로 완전해지려고 한다.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나, 참 나, 이것을 찾아서 어디까지 변화하는가? 무중력 상태까지다. 해탈이라고 하는데 중력을 벗어난다는 말이다.

육도 윤회에서 빙빙 돌 것인데, 해탈은 이 육도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난다는

말이다. 그러면 완전 자유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소망이다.

기독교도 한 때 이랬다. 그런 인간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다. 돌기둥 위에 평생 쪼그리고 앉아서 산다. 오금이 다 썩어서 구더기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앉아 산다. 주상성자라고 한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순례자들이 와서 순례를 한다.

이런 사상이 지금도 기독교에 남아서 기독교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늘 있는가? 늘 있지 못하다. 또 있으면 담을 쌓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돌담을 쌓아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돌담을 쌓아보면 돌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야 된다. 그런데 유별나게 생긴 돌은 담을 쌓을 수가 없다.

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데 연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 가기가 참 힘들다. 안 된다. 나는 연약하여 일찍 포기한 것이 참 다행이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끝까지 해보았을 텐데 못해 보았다. 해보니까 안 되어서 포기한 것이다.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했더라면 끝까지 갔을 텐데 못했다.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을 몰랐다. 이렇게 안전지대가 있는 줄을 몰랐다. 겉으로 보기에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그 자리가 그렇게 안전한 자리가 없는 것이다. 요동치 않는 자리이다. 시간이 가도 요동치 않고 세상이 변해도 요동치 않는 자리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그래야 쓰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손가락 5개를 끼려고 장갑을 만들어놓았는데, 장갑에 손가락을 6개를 만들어놓으면 더 좋은 장갑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걸리적거린다. 손가락 하나가 더 있으면 길 때마다 걸리적거린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사람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쓴다.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딱 맞아야 된다.

결혼을 해도 둘이 레벨이 비슷하여 딱 맞는 사람끼리 결혼해야지 너무 격차가 심하면 못 산다.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부부간에 사는 것을 보면 지 눈에 안경이다. 적당히 맞으니까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술 먹고 아내를 때린다. 그래도 그 남편이 없으면 못 사니

까 천생연분이다. 어쩔 수가 없다. 옆 사람이 그런 남자와 어떻게 사느냐고 이혼 시켜 놓으면 당장 뒤돌아 서서 후회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혼 시키면 안 된다. 원망 듣는다. 다 지 눈에 안경이다.

하나님도 자기에게 버거운 사람을 쓸 수가 없다.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자기한테 딱 맞는 사람을 만들어놓았는데, 인간이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천사처럼 되려고 했다.

천사처럼 되면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온다. 내가 언제 천사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했느냐고 나온다. 천사는 내가 부리는 영에 불과하지 아들이 아니다. 사람만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뛰어내리지 못하지만 사람만 아들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오신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 뛰어 돌아 다니고 날아 다니는 인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붙어서 꼼짝 못하는 그 인간이 그렇게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

흙을 보라.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흙이다. 흙 자체로 보면 참 답답하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자기 것도 없다. 봄만 되면 갈아 엎는다. 요즘 냄새 나는 비료를 뿌려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른다. 완전히 똥 바가지 뒤집어 쓰는 것이다.

그리고 씨를 뿌려서 좀 살만 하니까 가을이 되어 다 거두어가 버린다. 겨울에는 썰렁한 바닥에 눈 오고 비 온다. 그런데 그 밭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흙의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에게 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것이 바로 가치다.

로마서 5장 6장을 지나가면 7장이 나온다. 7장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롬7:24).”**가 나온다. 갑자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롬7:21).”** 이런 고통스러운 장면이 또 나온다.

연합했으니까 잘 나가면 될 텐데, 이 7장 한 장이 갑자기 들어있다. 이 장을 저 앞에 놓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인간의 절망적 상태 다음에 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여기에 놓았을까를 많이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숨 돌린 것이다. 주님과 연합 다음에 이 장이 나오고 8장이 딱 연결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롬7:24).”**라고 했는데, 8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는가? 갑자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는 것이다.

가운데 그 말을 넣어놓아야지 넣어놓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다. 신비하게 배열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썼는지, 뒤로 배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편지를 써도 그렇게 쓸 수 밖에 없다. 본론을 말해놓고 결론 짓기 바로 직전에 그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서 결론을 탁 쳐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2).” 얼마나 통쾌한가! 이 말이 그렇게 통쾌한지 모르기도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좋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롬7:24).”**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보니까 로마서 5장 6장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랬구나.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갑자기 **“그러므로”** 하니까 어디서부터 **“그러므로”**인지 모른다.

우리가 연합되었으므로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한다. 법적인 법을 말한다.

이제는 법적인 세계를 벗어났다. 믿었으니까 대가로 의롭다 함을 준다는 이런 법적인 세계에서 벗어났다. 여기와 앞을 비교하면 차이가 얼마나 많은가?

불의하지만 인간은 형편없지만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을 참 웅색한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오면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하고 웅색한 것이 전혀 없다. 생명의 영의 법이 있다는데~

연합 안에 새로운 법이 있다. 연합 안에 새로운 생명의 법이 있다. 이 연합은 마치 수정란이다. 닭은 뱃속에서 알을 생산한다. 닭을 잡아보면 알이 줄줄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수탉이 없으면 다 무정란이다. 수탉이 있어야 유정란이 되어서 나온다. 거기서 비로소 병아리가 나오게 된다. 생명의 영의 법이 작용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연합된 자리로부터 우리는 새 생명이 된다. 새 생명

이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이 새 생명이다. 수정란 그것이 새 생명이고, 무정란 그것이 옛 생명이다. 무정란을 아무리 좋아도 무정란은 무정란이다. 부화장에 넣어 놓으면 병아리가 나오는가? 안 나온다. 부화장에 가보면 40도 이상 올려놓고 달걀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시간되면 한번씩 굴러준다. 시간이 되면 병아리가 탁 나온다. 아주 신기하다.

그런데 이 무정란은 아무리 따뜻하게 하고 아무리 굴러주어도 새끼마냥 굶아버린다.

새 생명! 이것은 생명의 영의 법이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연합의 비밀이고 연합의 영광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획득하신 것,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모든 것이다. 우리 인간이 꼭 갖추어야 할 그 모든 것을 다 얻으셨다고 성경에 되어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밖에는 우리에게 분배되지 못한다.

전에는 법적인 시대였으니까 거래를 통해서 주고 받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얻으신 것은 이제 법적인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로 가보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1:30).”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됐다고 한다. 우리가 지혜를 따로 얻는 것이 아니다.

구약성경의 지혜라고 하면 잠언서이다. 지혜를 얻으려고 잠언을 읽어보면 별 것이 없다. 손자를 가르쳐 보려고 잠언을 읽어보았는데, 맨날 읽어봐야 똑 같은 소리밖에 없다. 지혜가 별 것이 없다. 다른 데 더 많다. 명심보감을 읽으면 그보다 더 좋은 지혜가 많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는 책이고 별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잠언을 하도 많이 읽어서 잠언을 1000독을 했다고 한다. C.C.C. 간사 중 한 사람인데 잠언 박사라고 소문이 났었지만 결혼 후 이혼을 했다. 그렇게 지혜를 배워서 결혼도 성공하지 못한다.

구약시대에는 지혜를 따로 얻었다. 은사로 얻었다. 거룩함도 얻었다. 신약에 와서도 그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믿음을 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었다고

한다. 내가 믿음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셨다고 한다. 이것은 상업적인 거래이고 법적인 거래이다. 이것은 불안한 거래이지 완전한 거래가 못 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아니다. 그분이 얻으신 모든 것이 다 공유된다. 함께 공유된다. 에베소서를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2:6).”라고 한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하늘에 앉겠는가?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은 당연히 앉아있는 자리가 하늘이다.

신약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포함된 것이다. 그분이 얻으신 모든 것 안에 내가 포함된다. 그분이 버린 모든 것을 내가 버린 것이고, 그분이 얻은 모든 것을 내가 다시 얻는 것이다.

나 따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나 따로 거룩해질 수도 없다. 그분이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이 나의 거룩이 된다.

구속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환원을 하겠는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는가? 그분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다. 내 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원래의 나를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원죄, 원죄 하지만 원죄가 무엇인지 아는가? 모른다. 회개하면 어디로 돌아가는가? 갈 데가 있어야 돌아간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전부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

태평양 물은 그 속에 있는 물고기의 것이다. 고기는 고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평양에 있는 물이 다 자기 것이다. 피라미 새끼도 고기이니까 고기 안에 포함된 고기이다. 한 고기가 물에서 수영을 즐긴다면, 모든 고기가 물에서 다 수영을 즐기는 것이다. 그 얼마나 쉬운가! 아주 단순하고 쉽다.

복음이 이렇게 단순해졌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너무 단순해졌다. 이 복음이 나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겪어왔다. 최종적으로 이 복음이 나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고 했다.

이 한 사람을 주었다.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다. 아들을 그냥 선물로 주어서 좋은 줄 알았지만 아들을 내 생명으로 주었다.

그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3~16).” 이렇게 나온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이 분배되게 되었다. 공유되게 되었다. 합해지니까. 따로 따로 일 때는 공유가 될 수가 없다. 다른 집에 살면서 이웃집 사람이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내가 그것이 먹어지는가? 한 집에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먹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것이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것! 정말 절망적인 것이다.

왜? 해도 해도 안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천사가 되겠는가? 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저주이다.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안 될 것이 없다. 왜? 이미 그분이 다 얻어놓은 것이니까 내가 따로 좇아다니면서 구할 것도 없고 다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

예수님 이후에, 또 부활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이다. 우리가 살아봐야 된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문제이지 그것을 연구해보았자 모른다. 부활한 사람이 어떻게 와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가 살아봐야 40일도 알고 50일도 안다.

그 생명은 같이 살아봐야 그 생명의 가치가 나온다. 그 생명은 가만히 있으면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 말을 타봐야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알 수 있지 타보지 않고 어떻게 좋은 말인지 알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문제이다. 살아서 그 생명을 나타내야 될 문제이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안전하고 확실하고 단순한 세계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없다. 이 복잡한 인간 하나면 하나씩 다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는데, 이것을 무슨 수로 언제 구원하겠는가? 하나로 완전히 만들어서 한방에 구원한 것이다. 모아놓고 한방을 쳐야 되지 흩어져 있는데 폭탄을 던져봐야 되겠는가? 안 된다.

고기를 잡을 때도 썩악 몰아서 그물에 집어넣는다. 멸치 잡는데 가보면 그렇다.

밤에 불을 달고 가면 멸치가 불을 보고 따라 온다. 바다의 멸치가 다 따라 온다. 좌악 몰고 가면 정치망이라고 망을 쳐놓은 그 안으로 배가 속 들어가면 멸치가 전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다에 흩어진 멸치를 어떻게 잡겠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끝내고 하나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한 사람 예수 안에서 두 사람을 끝내버린다. 아담을 끝내버리고 새 사람을 시작한다.

십자가를 자세히 보라. 두 사람이 달려있다. 한 사람은 끝내야 될 사람이 달려있고, 한 사람은 다시 살아야 될 사람이 달려있다. 다시 살아야 될 사람이 새 생명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와 연합할 때 수정난이 된다.

그만 해야지 한정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재미있다. 이렇게 신기한 방법이 어디 있는가? 한 사람 안에,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세상에 왔다는 말이 놀라운 말이다.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아담! 여러분에게 복음의 큰 진보가 있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